대원암, 제주 대표 관음도량 발원

관음전 개원 · 천불관세음보살 점안법회

조계종 죽림정사 분원인 제주도 대원암은 4월 21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을 증명 법사로 관음전 개원 및 천불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태고종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태종사 도성 스님, 가산 스님, 목탁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각 기관장 및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대원암 천불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모두가 함께 선업을 쌓으며, 해수관세음보살도량 대원암이 관음기도 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 이웃에게 지혜를 전하고 포교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원암 주지 법산 스님은 "불심의 섬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음도량으로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사부대중과 함께 더욱 기도 정진하는 관음성지로 대원암을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부대중은 점안법회에 이어 대원암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생명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제주 대원암은 바다와 인접한 사찰로 바닷물이 만조를 이루면 해수면에서 와불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관음성지로 국내외 불자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영 · 호남 환히 밝힌 봉축탑 지난달 2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환히 밝힌 데 이어 영남과 호남에서도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지혜의 빛이 퍼졌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 삼광사, 고창 선운사, 정읍불교사암연합회 등은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각 지역서 봉축탑을 점등하고, 환희로 가득찬 5월이 되길 기원했다. 사진은 5월 1일 부산 송상현광장서 진행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 현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저소득 화재 예방 불교가 함께"

금정구불교聯, 화재 안전 취약지구 소방시설 기증

부산 금정구 내 저소득 가정 화재 안전 지원을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금정구불교연합회(회장 고담)는 4월 26일 금정구소방서 내 강당에서 저소득층 화재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금정구불교연합회는 기증식에서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기 100여개를 전달하고 부곡 4동에 위치한 200여 가구를 직접 방문, 설치를 도왔다.



기증식에는 금정구불교연합회장 고담 스님, 수석부회장 지홍 스님, 부회장 법일 스님 및 신도 50여 명과 서명근 금정소방서장 등 소방관 1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고담 스님은 "앞으로 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으로 취약계층 화재 안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우리의 활동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고 더 밝은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병원 밝힌 비구니들의 봉축 나눔

부산 화엄회, 부산대병원서 환자 · 가족에 선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화려한 연등이 전국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도심을 수놓고 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아픔이 더 짙어지는 현장, 바로 병원이다. 그래서 병마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매년 이 시기, 병원을 찾아 위로하고 쾌유를 비는 스님들이 있다.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비구니스님들의 모임 '화엄회'다.

부산 화엄회(회장 상화)는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봉축선물을 전달했다.

이른 아침, 부산 천태암에는 비구니스님 40여 명과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갈색 모양으로 제작된 상자에 진주 합장주와 수건, 빵 등 선물을 담아 포장하는 일로 손길이 분주했다. 초여름 날씨에 이른 더위로 땀이 흐르지만 선물 상자 하나를 옮기는 것까지 비구니스님들의 몫이었다. 선물이 도착한 곳은 부산대학교병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호사, 청소부까지 모두를 위해 준비한 선물만 1700개다.

스님과 신도들은 선물을 들고 병원 병실을 돌기 시작했다. 선물 위에는 연등이 놓여있고, 환자와 가족들을 병원에서 만나는 스님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스님들은 병실을 방문해 환자들의 손을 잡고 쾌유를 기원했고, 환자들은 선물을 받아들며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기뻐했다.

스님을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한 환자 가족은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채 "어느 사찰에서 나오셨느냐?"며 "기도를 하고 싶다"고 병원 내 법당 위치를 묻기도 했다. 환자들은 "아플 때 기도를 더욱 하고 싶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스님들께서 찾아주시니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감사해했다.

비구니 스님 십시일반 모금
매주 환자 쾌유 기도 올려
20년 동안 꾸준히 병원봉사
국내 · 외 봉사활동으로 확대

화엄회는 매년 환자들을 위한 봉축 선물을 나누고 있다. 병원 봉사를 위해 시작된 화엄회 모임은 올해 25년차이며, 봉축을 기념하는 선물 나누기는 20년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선물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만 1000만원, 지난 20년 동안 2억 가량이 소요됐다.



부산 화엄회가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봉축선물을 전달했다. 회장 상화 스님이 환자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회장 상화 스님은 "처음에 부산대학교병원 내 법당을 후원하고 봉사를 함께 하고자 화엄회가 조직됐다"며 "그때 당시는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준 스님들의 힘으로 꾸준히 봉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엄회는 병원 내 봉사모임으로 시작해 국내 및 국외 자비나눔 실천모임으로 확대됐다. 현재 화엄회는 43명의 회원스님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포교 후원, 네팔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불사, 미얀마 학교건립불사 등 활발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부산대학교병원 내 불교법당을 운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상화 스님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날을 축하하려면 부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며 "자비나눔을 실천하신 부처님의 행보를 따라 병원에 방문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 화엄회와 불자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컴컴한 교도소에도 자비광명을"

전주교도소 불교분과 재소자 위한 특별법회

전주교도소(소장 구지서)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재소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월 26일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진성) 주관으로 열린 특별법회는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을 증명법사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진안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 김제 구룡사 주지 대공 스님, 군산 염불사 주지 행담 스님과 강석춘 · 이원일 포교사가 동참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싹은 아스팔트나 벽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운다"며 "이곳에 있는 분들도 이미 어려움을 뚫고 참회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사는 분들이 됐다"고 격려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 밝고 맑고 깨끗하게 마음의 눈을 활짝 떴다. 앞으로 행복의 꽃을 피워 견성성불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주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뽑힌 100명이 불교교리 상식을 겨루는 '도전 골든벨' 경시대회가 열렸으며, 10명의 재소자들과 스님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족처럼 어려움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시간이 진행됐다.

교리경시대회는 최후의 4인이 마지막 10문제를 연속으로 맞혀 함께 공동 우승하는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이는 불교교정위원회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재소자들의 교리공부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불교분과에서는 교리대회와 이달의 불자상 상금을 영치금으로 후원하고 떡과 과일, 한과, 과자 등으로 재소자들을 위로했다.

한편 김제 구룡사 대공 스님은 이날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선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 고창문화원 청소년 문화경연대회

제42회 동백연 경연대회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잔치인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이 4월 27일 선운사 일원에서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고창문화원(원장 송영래)이 공동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효행심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42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에는 유치부 어린이에서 중 · 고교생까지 500여 명이 동참해 끼를 발산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경연은 백일장과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조경창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의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